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분들과 나누고자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북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국립극단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투: 페레스트로이카



국립극단

ANGELS IN AMERICA was commissioned by and received its premiere
at the Eureka Theatre, San Francisco in May 1991

Also Produced by

Center Theatre Group/Mark Taper Forum of Los Angeles

Gordon Davidson, Artistic Director/Producer

Produced in New York at the Walter Kerr Theatre by

Jujamcyn Theatres, Mark Taper Forum with Margo Lion, Susan Quint Gallin,

Jon B. Platt, The Baruch-Frankel-Viertel Group and Frederick Zollo

in association with Herb Alpert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샌프란시스코 유레카씨어터의 지원으로 1991년 5월 초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센트럴 씨어터 그룹/마크 테이퍼 포럼,

뉴욕 월터 커 씨어터Walter Kerr Theatre에서 공연되었습니다.



국립극단 엔젤스 인 아메리카-파트 투: 페레스트로이카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청



연출의 글	오리지널리티의 회복 ■ 신유청	2
줄거리		4
인물관계도		6
출연진		7
작품 이해돕기—1	〈엔젤스 인 아메리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 허순자	11
작품 이해돕기—2	1980년대 미국, 에이즈 위기 ■ 고강일	15
작품 이해돕기—3	‘토니 커쉬너’와 그의 작품세계 ■ 윤정용	18
작품 이해돕기—4	작품 속 키워드	22
1부 공연 리뷰	팬데믹의 등장으로 되묻는 혼돈된 가치관과 신의 메시지 ■ 이미원	29
무대디자이너의 글	외부로부터	32
소품디자이너의 글	천국과 우리의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34
1부 공연 사진		35
스태프 프로필		38
만드는 사람들		39

오리지널리티의 회복

신유청
연출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와 함께 했던 긴 시간이 이제 종착지에 다다름을 느낀다. 처음 배우들을 만나 덜덜덜 떨면서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 작품은 하늘과 땅이 서로 얹혀 짜내는 매듭과도 같다. 토니 커쉬너가 쓴 8시간 희곡의 비밀을 밝혀 낸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나로 거듭날 것이다.” 페레스트로이카는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한계 안에서 살아간다. 몸은 기본적으로 더 편하기를 원하고,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길 원한다. 모두가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욕구와 부딪히는데 삶의 갈등은 거기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초월의 과제’이다. 몸의 욕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복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이것은 우리의 도전이자, 과제이다. 그것이 잘 될 때도 있고, 잘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리고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다. 나의 세계를 뚫고 나가, 나의 외부에 있는 타자를 행복하게 할 때에 삶은 보람을 얻게 되어 있다. 그 순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를 넘어선 큰 뜻 THE GREAT WORK에 접속해서 사는 삶.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야 한다. 이웃을 통과하지 않고서 하나님 마음에 당도할 길은 없다.

성경에서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한다. 죄의 정의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것을 죄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작동하기 마련인데, 하나는 중력이고 다른 하나는 위에서 이끄는 힘, 바로 은총이다. 때론 중력을 거슬러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작동한다.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내 안에 연민이 생기고, 그들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어떤 힘이 더 셸까? 살다 보면 중력의 힘이 은총의 힘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것인가? 죄의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기독교 문화에서는 ‘원죄’라고 말을 해왔다. 인간은 본래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고. 파트 원 〈밀레니엄이 다가온다〉는 이러한 지점을 아주 첨예하게 다뤄왔다. 그리고 파트 두 〈페레스트로이카〉는 그다음의 이야기이다. 성경에는 원죄와 대비되는 또 다른 단어, ‘원복’의 개념도 있다. 창조의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기록이 있다. 히브리어 ‘바라’는 ‘창조하다’라는 뜻이고, ‘바라크’는 ‘축복하다’라는 뜻이다. 창조, 그 자체의 언어 안에 복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복이라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내 코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셨기에 내가 삶의 땅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복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나 자체가 복이다. 이것이 오리지널 복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 복이란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온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뒷마당에서 찾지 못한다면, 애초에 잃어버린 것이 아니니’

만약 이것을 나의 믿음 안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실존적 태도 역시,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다. 우리 주변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세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인다. 이 세상을 살면서 경탄할 수 있는 능력, 신비 그 자체의 삶을 살아내길 바란다. 이것은 〈엔젤스 인 아메리카〉의 대장정의 이유이다.

신유청 Shin U-chung

〈그을린 사랑〉 〈와이프〉 등 작품을 통해 전쟁, 소수자 등 동시대 묵직한 주제를 세밀하면서도 집중력 있게 조명해왔다. 원작 텍스트를 충실하게 따라가면서도 창의적이고 연극적인 표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백상예술대상, 동아연극상을 비롯해 연극계 굵직한 상에 이름을 올리며 지금 한국 연극계가 주목하는 연출가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p>주요작품</p> <p>2021 〈빈센트 리버〉</p> <p>2020 〈궁극의 맛〉</p> <p>2019 〈그을린 사랑〉 〈와이프〉 〈녹천에는 똥이 많다〉 〈엔체인〉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p> <p>2018 〈추ing_낯선자〉 외</p>	<p>수상내역</p> <p>2020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연극부문 백상연극상 〈그을린 사랑〉</p> <p>제56회 동아연극상 연출상 〈그을린 사랑〉 〈와이프〉</p> <p>제7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연극부문 최우수상 〈그을린 사랑〉</p> <p>2019 월간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7 〈녹천에는 똥이 많다〉</p> <p>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그을린 사랑〉</p>
--	--



보수주의와 에이즈 공포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던 1985년 뉴욕. 낮선 미국 땅으로 이주해 가족을 일군 유대인 여인의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다.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루이스는 동성 연인 프라이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진다. 한편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조는 ‘악마의 변호사’ 로이 쿤에게 워싱턴 D.C. 법무부 일을 제안받지만, 아내 하퍼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 병세가 악화되는 연인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루이스는 프라이어를 떠나고, 환청인지 환상인지 모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프라이어 앞에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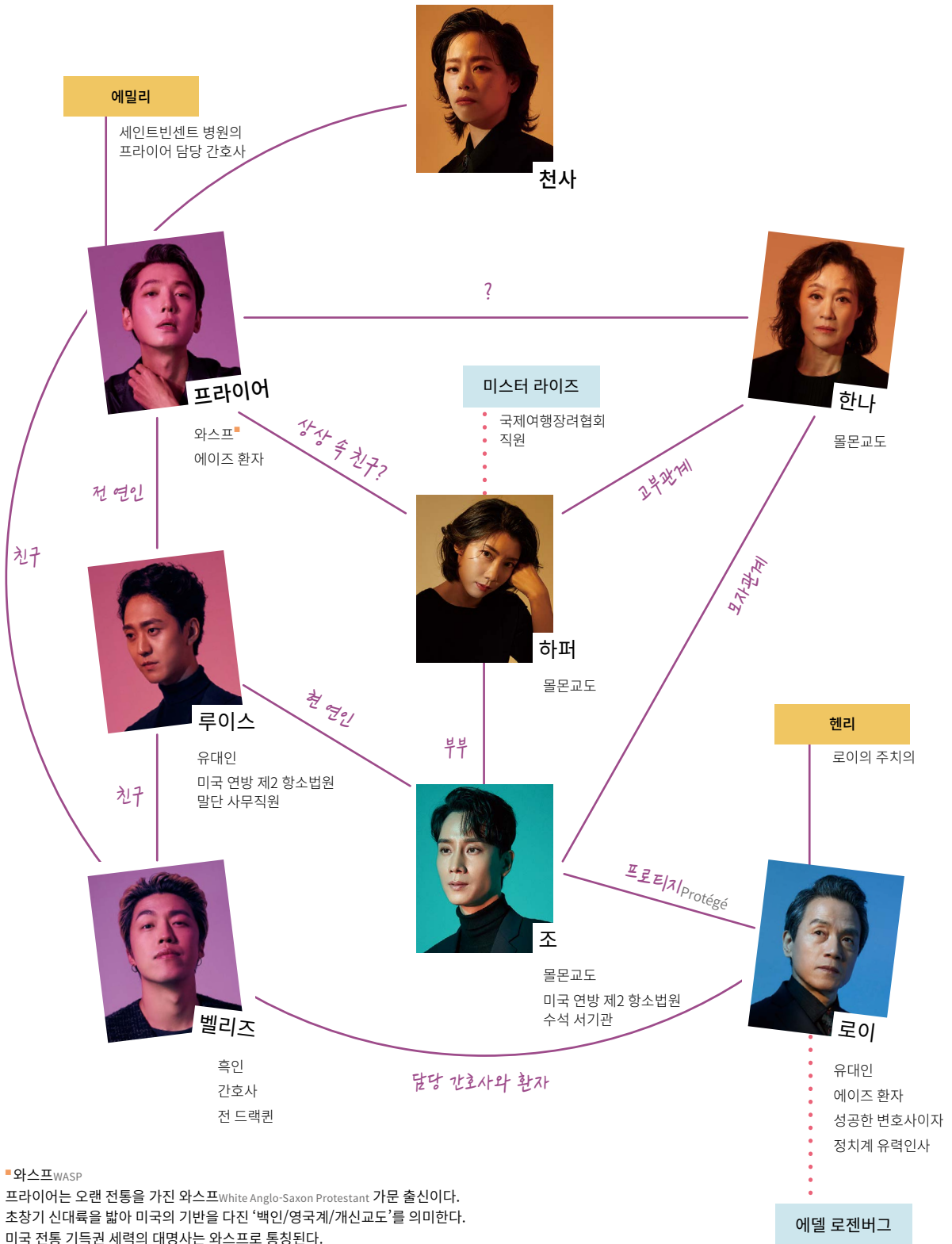
New York in 1985 is pervaded with conservatism and the fear of AIDS spreading across the United States. The play begins with the funeral of an elderly Jewish woman, who immigrated to the States and built a community for her family. Her grandson, Louis, is shocked to learn that his lover Prior has AIDS. Joe, a clerk in a judge's office is offered a position in the Justice Department in Washington, D.C., by the devilish lawyer Roy Cohn, but finds it difficult to persuade his wife Harper to move. Frightened by the sight of his lover's deteriorating conditions, Louis leaves Prior, and Prior begins to hear an angelic voice and receives visits from apparitions.

프라이어는 자신에게만 들려오던 그 목소리의 정체와 드디어 조우한다. 프라이어를 떠난 루이스는 자신의 아파트로 조를 초대하지만 여전히 프라이어를 잊지 못하고, 아들 조를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를 떠나온 한나는 홀로 남겨진 하퍼를 돌본다. 한편 병원에 입원해 병마와 싸우는 로이는 자신을 경멸하는 벨리즈의 간호를 받게 되는데...

5년이 흐른 1990년 1월의 어느 날, 센트럴 파크 베테스다 분수에 모인 사람 중 하나가 이야기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며, 세상 또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 그리고 용서와 화합의 서사시가 이제 곧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The identity of the voice in his head is finally revealed to Prior Walter. Although Louis invites Joe to his apartment after leaving Prior, he can't forget Prior. Concerned for her son, Joe, Hannah leaves Salt Lake City, and starts looking after Harper, who's been left all alone. Meanwhile, Roy fights AIDS at hospital, under the care of Belize who despises him.

Five years later, in January 1990, one of the men gathered around Bethesda Fountain in Central Park claims “We won't die secret deaths anymore. The world only spins forward.” Thus concludes the fight to break down barriers—the epic of forgiveness and harmony.





박지일 Park Ji-il

로이 마커스 콘, 천사 앤탈티카 Roy Marcus Cohn and Angel Antarctica

연극

〈오피스〉 19,17 | 해롤드 | 아트원씨어터 1관 외
 〈크리스천스〉 18 | 폴(목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사회의 기동들〉 14 | 카르스텐 베르니크 | LG아트센터
 〈대학살의 신〉 10 | 알랭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도살장의 시간〉 09 | 천편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서안화차〉 03 | 상곤 | 정미소 소극장 외
 〈보이체크〉 03 | 보이체크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슬픔의 노래〉 96 | 박운형 | 문예회관 소극장 외
 외

수상

2004 동아연극상 남자 연기상
 2002 서울 공연 예술제 연기상
 2002 히서연극상 올해의 연극인상
 1996 서울연극제 연기상
 1993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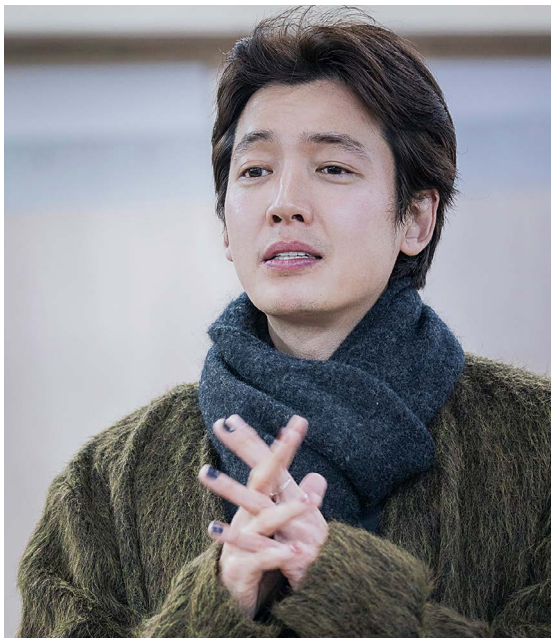


전국향 Jeon Guk-hyang

한나 포터 피트, 에델 로젠베그, 알렉시 안테딜루비아노비치
 프렐라프 사리아노프, 헨리, 천사 아시아티카
 Hannah Potter Pitt, Ethel Rosenberg, Aleksii Antedilluvianovich
 Prelapsarianov, Henry and Angel Asiatica

연극

〈빈센트 리버〉 21 | 아니타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7분〉 21 | 블랑세 | 아트원 씨어터
 〈조치원 새가 이르는 곳〉 21 | 엄마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화전가〉 20 | 권씨 | 명동예술극장
 〈알리바이 연대기〉 19 | 어머니 외 | 명동예술극장
 〈단편소설집〉 19 | 루스 스타이너 | 대학로 SH아트홀
 〈인형의 집, Part2〉 19 | 앤 마리 | LG아트센터
 〈이카이노의 눈〉 19 | 큰어머니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신의 아그네스〉 18 | 원장수녀 | 동양예술극장 2관
 〈애도하는 사람〉 18 | 사카츠키 준코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여도〉 18 | 정희왕후 | 한전아트센터
 〈병동소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17 | 명자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외
 외



정경호 Jung kyung-ho

프라이어 월터 Prior Walter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21 | 김준완 |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20 | 김준완 |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19 | 하림/서동천 |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17-18 | 이준호 | tvN

〈미씽나인〉 17 | 서준오 | MBC

외

영화

〈압구정 리포트〉 〈대무가: 한과 흥〉 〈맨홀〉 〈롤러코스터〉 〈거북이 달린다〉

외



김보나 Kim Bo-na

하퍼 아마티 피트, 천사 아프리카니 Harper Amaty Pitt and Angel Africanii

연극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21 | 미자 |

백성희장민호극장

〈파우스트 엔딩〉 21 | 헬레나 외 | 명동예술극장

〈햄릿〉 20 | 호레이쇼 | 명동예술극장(온라인 극장)

〈동양극장 2020〉 20 | 윤정옥 | 백성희장민호극장(온라인극장)

〈맷글부대〉 19 외 | 임소진 | 동양예술극장 외

〈햄릿-디 액터〉 19 | 사라 |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카르멘〉 19 | 카르멘 | 정동 세실극장

〈응, 잘가〉 19 | 종삼 | 여행자극장 외

〈'미인도' 위작 논란 이후 제2학예실에서 벌어진 일들〉 17 | 조성원 |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소〉 17 | 동이엄마 | 광주아시아문화전당

〈누수공사〉 17 | 옛애인 | 소극장 판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13 | 윤보나 | 혜화동1번지

외



권은혜 Kwon Eun-hye

천사, 에밀리, 몰몬 엄마 마네킹, 오린, 목소리
The Angel, Emily, Mormon Mother Mannequin, Orrin and The Voice

연극

〈파우스트 엔딩〉 21 | 마르테·호문쿨루스·결안·들개 | 명동예술극장
〈스카팜〉 20 | 아르강뜨·네린느 | 명동예술극장 외
〈불꽃놀이〉 20 | 세영 | 소극장 판
〈안티고네〉 19 | 이스메네 | 강동아트센터
〈레드 올랜더스〉 19 | 양사블 |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
〈7번국도〉 19 | 용선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드라곤 킹〉 19, 18 | 연기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외
〈더 정글북〉 18, 17, 16 | 모글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외
〈원이엄마〉 18, 16, 15 | 몽태 | 안동 문화예술의전당 백조홀 외
〈로미오와 줄리엣〉 18 | 벤볼리오 | 강동아트센터 외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18, 14 | 고양이 외 | 산울림 소극장 외
〈미녀와 야수〉 17 | 원송이 집사 | 강동아트센터 외
외



정환 Jeong Hwan

조셉 포터 피트, 몰몬 아빠 마네킹, 천사 유로파
Joseph Potter Pitt, Mormon Father Mannequin and Angel Europa

연극

〈와이프〉 20, 19 | 에릭, 카스 | 세종문화회관 S씨어터 외
〈이카이노의 눈〉 20 | 노리히로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언체인〉 17 | 싱어 | 콘텐츠 그라운드
〈잔치〉 16 | 케빈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갈매기〉 13 | 프레플레프 |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외

뮤지컬

〈원스〉

영화

〈메리크리스마스 미스터 모〉 외

드라마

〈모범형사〉 〈안녕 드라쿨라〉 〈뱀비우스: 검은태양〉 외



김세환 Kim Se-hwan

루이스 아이언슨, 천사 오스트렐리아 Louis Ironson and Angel Australia

연극

〈SWEAT 스웨트〉 21 | 오스카 | 명동예술극장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21 | 서양화 전공 C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파우스트 엔딩〉 21 | 바그너 외 | 명동예술극장

〈여름이 지나갈 때〉 20 | 민재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버닝필드〉 20 | 진우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스푸트니크〉 20,19 | 남자2 | 서강대메리홀 소극장

〈자본〉 19,18 | 세환 | 연우소극장 외

〈록앤롤〉 18 | 스티븐 외 | 명동예술극장

〈향수〉 18 | 아들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4Four〉 18,17 | R | 아트원씨어터 3관 외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17,16 | 윤관석 외 | 연우소극장 외

〈잔치〉 16 | 진욱 외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외



박용우 Park Yong-u

벨리즈, 미스터 라이즈, 케일립, 천사 오세아니아
Belize, Mr. Lies, Caleb and Angel Oceania

연극

〈SWEAT 스웨트〉 21 | 제이슨 | 명동예술극장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21 | 오감독 외 | 백성희장민호극장

〈잘자라랄라〉 19 | 2 | 미아리고개예술극장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18,13 | 박용우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외

〈그들의 적〉 17 | 사카모토 | 연극실험실 혜화동1번지

〈개인의 책임〉 17 | 기창 | 복합문화공간 연희정원

〈세일즈맨의 죽음〉 17,16 | 해피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한여름밤의 꿈_부산 밤바다〉 15 | 용우 | 스튜디오76

〈외계인들〉 15 | 재스퍼 | 소극장 판

〈타조소년들〉 16,14 | 블레이크 | 소극장 판

외

수상

제 58회 동아연극상 연기상

〈엔젤스 인 아메리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

허순자 연극평론가

■ 이하 〈엔젤스〉로 표기한다.

■ 국립극단에서는 ‘토니 커쉬너’라는 표기를 채택하였으나, 본 원고에서는 필자의 의도에 따라 ‘토니 쿠쉬너’로 표기한다.

“미국 연극의 얼굴과 스케일을 한꺼번에 바꿔놓은 작품”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으며 20세기 후반 최고의 희곡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엔젤스 인 아메리카〉[■](1991)는 토니 쿠쉬너[■]의 수작이다. 1992년 영국 국립극장NT 제작으로 로렌스 올리비에 연극상을 수상한 것을 필두로, 이듬해 브로드웨이 공연 개막에 앞서 풀리처상, 토니상, 드라마데스크상, 뉴욕비평가상 등의 최우수드라마상들을 석권한 〈엔젤스〉의 예외는 현대 연극사의 수정을 요구하는 꽤거였다. 신화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브로드웨이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에 지적 성향의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오랜 전통의 《뉴욕 타임즈》 북 리뷰에 희곡이 전격 소개된 것이다. 이어 해롤드 블룸의 『서구의 정전』에 필수 문학 목록의 반열에도 오르는 영예의 월계관을 차지하게 된다. 이처럼 연극을 넘어 동시대 미국 문화의 다양한 영역으로 지평을 확대하며 남다른 영향력을 검증해온 〈엔젤스〉는 작가 자신에게도 ‘대표작Magnum opus’으로 각인된다. 그가 사려 깊은 통찰로 안내하는 특정 시대와 문화권의 풍토적 병폐, 죄의식으로 얼룩진 기억의 공간으로 초대받은 관객에게 〈엔젤스〉는 투명한 성찰과 감동, 사유의 시간을 약속한다.

작가가 1988년부터 집필하기 시작한 희곡은 우선 그것의 예외적인 규모로 관객을 압도한다. 텍스트의 큰 ‘몸통’을 파트 원 〈밀레니엄이 다가온다〉와 파트 투 〈페레스트로이카〉로 나눠 독자적 완결성을 지니게 한 것이다. 이들은 총 8개의 막과 에필로그로 방대한 서사적 구조 하에 각기 수십 개의 장면들(단속적이거나 오버랩으로 중층을 형성하는 ‘분할 장면들Split scenes’이 부지런히 교차하는)로 총합을 이룬다. 도합 7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은 그야말로 고전 대하드라마를 상회하는 길이다. 그러한 규모에 반격을 가하는 미니멀리즘 미학의 원리를 제작의 핵심으로 제시한 작품은 최소한의 장치와 빠른 장면 전환을 전제로 ‘절대 암전 불가’를 천명한다. 한편, ‘국가적 주제에 대한 게이 판타지A Gay Fantasia on National Themes’라는 부제로 관객의 호기심을 부추기는 거대 서사는 매직리얼리즘을 방불케 하는 전복적이며, ‘발칙한’ 상상력으로 관객을 충동한다. 그리하여 작가는 죽어가는 자(로이 콘)를 통해 이제껏 자신의 방식대로 역사를 조종해왔음을 근거로, 종말의 순간에조차 불멸을 호언케 한다. 바로 작가 특

유의 냉소이자 연극적 재치이다. 또한 그의 정치적 음모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한 이(에델 로젠버그)의 유령을 불러내 둘을 마주하게 한 건 예의 극적 아이러니요, 극장주의의 발동이다. 말미에 던진 “머잖아 역사는 크게 부서지고 말 것이다. 밀레니엄이 다가온다”는 유령의 경고는 이극의 또 다른 이들에게는 위로요, 희망이 될 것이다. 바로 암울한 시대적 증세를 온몸으로 요약해주는 이극의 집단적 주인공인 일단의 성소수자들이요,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상호 연결되는 주변인들이다. 그것은 또한 궁극적으로는 “기억은 역사의 시작”임을 확신하는 작가를 통해 연극으로 환기된 역사에의 인식을 공유하는 관객의 몫이 된다.

이처럼 20세기 미국 정치사의 흑막 속 실존 인물들을 소환해 재창조한 이들을 특유의 시적 알레고리의 한 축으로 활용한 극은 무대 위의 관습적 범계를 넘어 천상으로 확장되는 연극 우주를 펼친다. 여기서 작가가 이른 ‘판타지아’의 장르적 이점은 에이즈로 인한 고통과 배신, 소외에 시달리는 동성애자 프라이어 앞에 돌연 천장을 뚫고 나타나는 천사를 등장시키는 불세출의 스펙터클로 재생된다. 경악하는 프라이어에게 이는 “완전 스티븐 스피버그”요, 관객에겐 그의 환상의 도가니에 적극 동참하는 기회가 된다. 커다란 은회색 날개를 퍼덕이며 환자의 침대 위를 떠도는 천사는 예언자의 출현을 알리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절망의 시대와 충돌하며, 동성애혐오증에 분노하는 저항적 사고의



영국 국립극장 NT Live <엔젤스 인 아메리카> 포스터



HBO TV 미니시리즈 <엔젤스 인 아메리카> 포스터

전모를 노정露하는 작품은 또한 스스로를 ‘대중적인 작가’로 이르는 쿠쉬너 극의 재미를, 그 충격을 놓칠 수 없다. 한편, 예의 비선형 구조로 짝을 이루는 파트 투는 파트 원의 어두운 극적 맥락을 희극적 톤으로 보완해준다. 스포일러를 경계하는 이 글에서는 종장에서 밀레니엄을 맞은 인물들이 변화의 가능성을 확신함을, 모두에게 용서와 화합을, ‘충만한 삶’에의 축복을 기림만을 전언한다.

“이 작품에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발생한다”고 한 이는 브로드웨이 초연에서 냉전기 매카시 상원의원의 오른 팔로 ‘레드베이팅’의 주역이었으며, 레이건 행정부의 막후 실력자로 군림했던 권모술수의 변호사 로이 쿤(또한 그가 한 때 트럼프의 변호사이기도 했음을 상기하는 건 진정 작가의 예지 아니런가)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론 리브만이다. 민주적 공존을 지향하는 국가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용광로 대신 샬러드볼의 타자성이 만연하는 미 자본주의의 수직적 경제/사회 시스템은 그 중추적 배경이다. 이에 소수자/약자에 대한 성적·인종적·종교적 편견과 차별이 초래한 미국 문화의 문제적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다.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에이즈가 확산되면서 엄청난 희생을 목격하게 된 80년대 레이건 시대의 국가적 오류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통찰이 중심을 이룬다. 정치적 부패와 불감증, 극우적 사고의 난기류에 희생된 많은 이들의 고통과 절실한 소망에 대한 작가의 반응인 것이다. 그 자신 유대계 커밍아웃 작가로서의 이중적 정체성과 고통스러운 개인적 체험이 파노라믹 예술 충동으로 현현한 진보적 지성의 뉘앙스는 새롭고도 예리하다.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임을 주지하는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역사에 대한 감각 없이 정치적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그 발판으로 삼는다.

작가는 직·간접으로 절묘하게 연결되는 5인의 동성애자들을 작품의 중심에 배치해 그들의 사적 서사의 공간에 복합적인 현실의 모순들을 절묘히 겹쳐낸다. 누군가는 기혼자로 뒤늦게 인식하게 된 성 정체성으로 인해 파장에 직면하고, 다른 이는 에이즈로 죽어가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호도하는 위선을, 또 다른 누군가는 에이즈로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그를 배신하고 떠난 이는 죄의식에 시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정과 의리로 빛나는 엑스 트랙퀸 간호사 등, 모든 인물들은 그 긴박한 시대의 맥박이 느껴지는 이들이다. 무엇보다 백미는 작가가 그 누구도 완전무결한 인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히 마키아벨리적이요, 현대판 리처드 3세와 비견될만한 사악한 변호사에게 마저 흥미로운 극적 활기를 제공하며, 또한 작가가 지지하는 그 반대편의 인물들에게서도 결함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담보하는 극은 공감대 확장에 주효한다.

쿠쉬너는 자국의 풍요로운 극작 전통의 토양, 즉 오닐, 윌리엄즈, 밀러로부터의 유산을 받은 행운의 작가다. 특히 그가 데이비드 사브란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것처럼, 윌리엄즈를 동성애적 성향의 “일종의 캠프 서사극의 창조자”로 지목하며, 깊은 존경심을 표한바 시적 리얼리즘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으리라. 비록 그가 자신의 캠프 극작을 ‘매력적인 연극 Theatre of Fabulous’로 차별화 하더라도 말이다. 쿠쉬너는 70년대 중·후반 대학 시절을 보낸 뉴욕시의 다양한 급진적 학생 운동에 가담하는 한편, 혁신적 실험 작업의 최전선에 포진해 있던 리처드 포먼, 엘리자베스 르콧트, 조앤 아칼라이티스, 찰스 러들럼 같은 오프-오프브로드웨이 연출가들의 공연에 심취하곤 했다. 그들로부터 받은 현장의 영감 또한 <엔젤스> 창작과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 연극 안으로부터의 영향들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의 드라마 트루기 에센스를 배양한 틀과 토대는 브레히트였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 쿠쉬너는 동시대 극작가들 가운데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받은 작가로 캐릴 처칠을 꼽으며, 그가 NT의 <밀레니엄>을 보러왔을 때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당황했던가를 고백한 적이 있다. 아니, 어쩌면 이들에 앞서 “규모에 있어 셰익스피어적이요, 도덕적 복합성에 있어 도스토옙스키적”인 특징을 지닌 <엔젤스>는 그 이전의 정전들로부터 영감의 세례를 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 모든 지구촌 연극 선배들의 심오하고도 선한 영향이 <엔젤스>의 모태요, 길라잡이가 되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원천은 바로 쿠쉬너 자신이요, 또한 그가 고백하듯, 그것을 요구한 특별한 시대는 창작의 행운이었다.

“사고가 없는 연극은 지루하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에 살을 입힐 때까지 모든 사고는 죽어있다. <엔젤스>는 바로 그런 사고들로 넘치는 작품이다”라고 말한 이는 무려 1년이 넘는 파트 원의 장기공연으로 먼저 축배를 들어준 NT 제작의 연출가 데클란 도넬란이다. 지난 30년 동서 연극의 다양한 창조적 해석들로, 때로는 알파치노, 메릴 스트립, 엠마 톰슨 등이 출연하는 마이크 니콜스 감독의 HBO 케이블 영화(2003)로, 혹은 파리 사틀레극장의 오페라 버전(2004)으로 무한히 변신해온 <엔젤스>는 이제 우리 국립극단의 관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전하려 한다. 90년대 후반 다소 이질적인 제목으로 선 보인 적이 있으나 본격적인 공연으로서의 국내 초연일 새로운 <엔젤스>의 긴 행진이다.

1980년대 미국, 에이즈 위기

고강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영문과 조교수

1980년대 미국사회를 강타한 에이즈 위기AIDS Crisis는 단순히 동성애자들의 의학적 이슈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 사회 내의 퀴어 공동체를 절멸의 위기로 몰아갔던 이 미증유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성찰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존재 의의, 공권력과 국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연대의 중요성 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졌기 때문이다. 무능한 공권력, 무책임한 언론, 비효율적인 관료제의 폐해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 비극적 사건은 미국의 역사에서 여전히 가장 참담했던 시기로 기억된다.

1981년 6월 5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생한 다섯 건의 기이한 폐렴 사례를 보고했다. 약 한 달 후, 7월 3일 《뉴욕 타임즈》는 41명의 동성애자들에게 유사한 증상이 발현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고, 같은 해 12월까지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성애자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한다. 그리고 오늘날, ‘후천성 면역 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이라 불리게 되는 이 질병으로 인해 1981년에만 총 1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 통상적으로 ‘동성애자 암Gay Cancer’으로 불리었던 이 괴이하고 공포스러운 질병은 1983년에 이르러서야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에 의해 유발된다는 사실이 규명된다. 1985년까지는 이 질병의 발병 여부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가 부재하였다.

에이즈의 초기 대응이 실패한 데에는 당시 레이건 행정부와 주류 언론의 무관심과 방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선 1981년 LA에서 최초의 에이즈 환자가 발생한 이후, 1987년 2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할 때까지, 재임 중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이 질병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행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으며 에이즈의 예방이나 확산의 방지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했다. 이 같은 레이건 행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은 “범죄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주류 미디어의 행태도 다를 바 없었다. 당시 《뉴욕 타임즈》를 위시한 메이저 언론은 이 위기의 본질에



1992년 10월 12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주변에서 ACT UP 회원과 시민들이 부시 행정부의 에이즈 연구 자금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Mark Reinstein

대한 성찰 없이, 에이즈를 일부 문란한 게이 남성들의 역병으로 치부하였으며,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경원과 혐오의 감정을 키우는 데 일조하였다. 에이즈 위기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동성애 혐오와 결합한 국가권력의 비윤리성을 견제해야 할 미디어는 오히려 에이즈 위기를 방조하고 조장하였다. 국가권력, 주류 언론 등의 이 같은 처사는 1980년대 초 에이즈 위기가 닥쳤을 때 초기대응에 철저하게 실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만다.

1981년에 출범한 레이건 정부를 이념적으로 추동한 세력들 중 하나가 보수적인 기독교 우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른바 ‘가족의 가치(family values)’를 최우선 의제로 채택하였다. 현실 정치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들에게 동성애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존재들로 인식되었다. 미국 사회 내에서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자, 정치적 논쟁의 전선을 동성애 이슈로 옮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80년대 발생한 에이즈 위기는 자신들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로 여겨졌다. 에이즈가 미국 사회 내의 게이 공동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자 이들은 이를 신의 응징이나 섭리에 의한 것이라 해석하였다. 동성애자들이나 에이즈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는 상당수의 유대교나 몰몬교 신자들도 공유하는 바였다. 일례로 1986년 몰몬교 교단의 대변인은 동성애를 불륜이나 혼전 섹스에 버금가는 죄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기도 한다.

1980년대 에이즈 사태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종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실 1980년대 초, 에이즈 위기가 본격화될 때, 미국 대중들에게 에이즈는 “백인 게이들의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다. 이는 에이즈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체로 백인 게이

들이 많았고, 그들이 주로 에이즈 사태의 시급함과 정부의 부당한 처우를 언론에 알리는 스피커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자들 공동체 내에서도 인종주의는 만연했고, 이는 에이즈 사태 초기 그들의 이중적 차별, 즉 동성애 혐오와 인종주의에 의해 동시에 박해받는 그들의 처지가 언론이나 여론의 시선으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하지만 흑인 남성들이 대체적으로 미국 전 인구의 불과 6%를 차지하던 1980년대 미국에서, 그들이 전체 에이즈 환자 중에 23%를 차지했다는 통계는 뜻하는 바가 크다. 즉 기왕의 인종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동성애 혐오가 만연했던 문화적 맥락 속에서,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교육수준이 낮았던 상당수의 흑인 게이 남성들이 에이즈에 대한 적절한 정보나 의료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1980년대 미국의 에이즈 위기 속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당대 할리우드 유명 배우 중 한 명이었던 록 허드슨(Rock Hudson)이다. 이 스타 배우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치료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 대중에게 알려진 시기가 1985년인데, 이 해는 미국에서 에이즈의 사회사를 논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1985년 이전에는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허드슨의 충격적인 에이즈 스캔들은 이 전례 없는 질병이 게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재앙일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물론 1955년에 한 타블로이드지에서 그의 동성애 성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었던 점이 있었던 만큼 허드슨의 발병 역시 결과적으로 에이즈는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라는 편견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이 폭로되기 전에는 미국의 대중들에게 허드슨의 이미지는 사뭇 달랐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그는 동시대의 제임스 딘이나 말론 브란도와는 달리 가정적이고 반듯한 모범적인 남성의 표상 같은 인물이었다. 따라서 1985년의 폭로는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1985년대를 기점으로 에이즈는 게이 남성들만의 역병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와 관련 기관, 주류 언론, 기성 종교 등에 의해 배척당하던 에이즈 환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에이즈 치료제의 개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저항도 없지는 않았다. 에이즈 사태 초기부터 게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비극적 사태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있었다. 그들은 감염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영양과 치료,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연좌시위 등을 통해 에이즈 환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1987년에 결성된 액트 업(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ACT UP)은 이 같은 에이즈 권익운동의 성과를 하나의 단체로 집결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시도했다. 이 단체는 다른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행정부에 에이즈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의 확대나 에이즈 치료제 조기 승인 등을 보다 강력하게 요구한다. 액트 업의 활동은 후에 유방암 환자를 위한 권익운동에도 영감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시민운동의 실례로 거론되기도 한다. 결국 1980년대 에이즈 위기는 당대 미국 사회의 각종 사회적 문제들과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응전이 집약된 역사적 사례라 할 만하다.

'토니 커쉬너'와 그의 작품세계

윤정용 _____ 평론가, 고려대 글로벌학부 초빙교수

토니 커쉬너(1956-)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지휘자이자 클라리넷 연주자였고 어머니는 바순 연주자였다. 그의 가족은 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로 이주했다. 그의 아버지는 뉴올리언스 필하모닉에서 클라리넷 연주자로 음악 활동을 계속하지만, 뉴욕 시티 오페라단에서 바순 연주자로 예술성을 뽐냈던 그의 어머니는 음악 활동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음악 활동 대신 지역 극장의 연극 무대에 자주 섰다. 커쉬너는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1949)에서 린다 역을 멋지게 소화한 어머니에게 매료되어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문학을 좋아하던 그의 아버지는 커쉬너가 문학적 토양의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즉 커쉬너의 부모님은 그가 연극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꽃을 피우는데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그들은 커쉬너에게 문화적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세례를 베풀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커쉬너가 극작가로서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커쉬너는 동성애자다. 그는 청소년기에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인지했고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감추기 위해 남들 앞에서 일부러 급진적인 태도를 취했다. 공격적인 토론 능력을 과시했고 페미니즘을 옹호하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의 컬럼비아대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받아들였고, 가족에게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 커쉬너는 동성애자임을 선언한 이후부터 그 누구보다도 동성애에 공개적이었으며 게이 인권운동에도 활발하게 참여한다.

커쉬너는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셰익스피어 수업을 듣게 되는데, 셰익스피어 수업은 그를 연극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커쉬너는 이 수업을 통해 셰익스피어의 모든 것이 패러독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패러독스로 점철된 인생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는 연극 무대에 이끌린다. 이후 모순과 갈등 속으로 관객을 밀어 넣은 후 관객에게 비판적 사고를 요청하는 브레틀트 브레히트의 '서사극'에 매료된다.



토니 커쉬너 Tony Kushner

수상내역

- 2013 제65회 미국 작가 조합상 파울 셀빈상
제47회 전미 비평가 협회상 각본상
제18회 크리틱스 초이스 각색상
- 2012 제25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각색상
제77회 뉴욕 비평가 협회상 각본상
- 2005 캔자스 비평가 협회상 각본상
- 2004 제56회 에미상 영화 드라마 미니시리즈부문 작가상

대학 시절 커쉬너는 벤 존슨의 <바돌로뮤 시장>(1614)을 연출하면서 뉴올리언스 출신의 킴벌리 플린과 우정을 쌓게 된다. 그는 플린의 영향으로 자신의 연극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발터 벤야민,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테오도어 아도르노 등의 독일 사회주의 이론을 섭렵하게 된다. 커쉬너가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두(1992)를 헌사할 정도로 플린은 그의 극작 경력과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엔젤스 인 아메리카>는 커쉬너와 플린 간의 우정과 지적 교류의 산물이다.

커쉬너는 <암살자의 시대>(1982)를 발표하며 극작가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의 작품 세계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괴테의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고, 어린이극을 쓰기도 했다. 17세기 영국의 의사이자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작품을 남긴 저술가이기도 한 브라운 박사의 전기를 극화한 <호장론 또는 브라운 박사의 죽음>(1987)을 발표하기도 했다. <데이라 불리는 밝은 방>(1985)에서 1930년대 독일 나치 시대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시대를 유비한다. 뮤지컬 <캐롤라인 혹은 변화>(2002)에서는 1960년대 루이지애나주를 배경으로 유대인 소년과 시녀 사이의 사랑을 통해 개인적 상실과 변화를 다루고 있다. 커쉬너는 ‘국가 예술 기금’을 포함해 수많은 연극상과 연구비를 받으며 극작가로서 명성을 쌓았고 <엔젤스 인 아메리카>로 1993년에 풀리처상을 수상한다. 그의 작품들은 상황에 의해 주변화된 힘없는 인물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하고 변증법적인 역사적 진보를 모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초기작에서 다루어졌던 극의 주제들은 이후의 작품들에서 보다 발전되고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커쉬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극작가는 역시 서사극의 창시자인 브레히트다. 커쉬너는 브레히트 서사극 이론과 브레히트에게 영향을 끼친 마르크스 이론을 섭렵한 뒤 연극을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연극을 통해 진보와 변화의 사상을 역설했다. 그의 진보적 사상은 브레히트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발터 벤야민과 에른스트 피셔와 같은 진보적 지식인들의 책을 읽으며 형성되었다. 커쉬너는 특히 ‘예술의 마술성’을 강조한 피셔에게 깊이 공감했다. 그는 리얼리즘을 거부하는 브레히트의 에피소드적 서사극에서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마술적 방식을 찾았다.

브레히트에 대한 커쉬너의 관심은 벤야민의 에세이 「역사 철학에 대한 의제들」(1940)로 이어졌다. 일찍이 벤야민은 역사적 유물론자의 임무 중 하나를 ‘역사 바라보고 거스르기’라고 규정했다. 벤야민의 역사관은 커쉬너의 〈엔젤스 인 아메리카〉와 소련의 사회주의 붕괴와 사회경제적, 생태적 파고를 진지하고도 우습게 그려낸 〈슬라브인들!〉(1994)에 잘 드러난다. 커쉬너에게 현재와 미래는 언제나 과거를 통해 조명된다.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하는 〈홍바디/카불〉(2001)의 경우에도 과거로의 회귀는 현재를 진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특히 이 작품은 미국과 그 서구의 우방국들이 급박한 미래에 취할 행동들에 의문을 제기한 이 작품은 9·11테러의 발생을 예고한 것으로 유명하다.

커쉬너는 미국 작가들에게서도 작품의 영감을 얻었다. 그는 미국 연극의 토대를 닦은 유진 오닐의 연극 세계를 형성하는 양대 기둥, 즉 ‘개인적 요소’와 ‘서사적 요소’에 깊이 영향을 받았고, 이를 자신의 극작품에 형상화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존경하는 선배 극작가는 자신과 같은 남부 출신의 동성애 작가 테네시 윌리엄스였다. 윌리엄스의 영향은 커쉬너 극의 감정적 측면, 유머, 시적인 언어에서뿐만 아니라 실험 정신과 연극의 마술적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윌리엄스의 시적 감수성과 섹슈얼리티 사이의 긴장은 커쉬너의 의식에 깊이 침윤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비평가들은 커쉬너를 윌리엄스의 후계자라고 평가했다.

커쉬너는 동성애와 에이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래리 크레이머, 테렌스 맥넬리, 하비 피어스타인 등과 같은 동성애 작가들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끼친 영향은 윌리엄스의 모순된 동성애관 및 시적 리얼리즘과 비교했을 때 미미하다. 이전의 동성애 극작가들은 동성애를 작품의 중심 소재로 삼으면서도 이를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전경화하지 못하고 개인의 문제로 국한했다. 하지만 커쉬너는 동성애를 범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주제로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이들과도 구별된다.

커쉬너는 개인의 불안과 해소되지 못한 섹슈얼리티에 천착한 윌리엄스와는 달리 사회, 정치와 같은 공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에이즈 공포로 인해 동성애자들이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로 살아가는 데도 레이건 정부가 무능과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커쉬너는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에 저항하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다. 커쉬너의 동성애자에 대한 관심은 유대인을 포함한 다른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즉 커쉬너는 예술 또는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게 여겼다. 커쉬너의 이런 점은 밀러의 극작관과 공명한다. 커쉬너는 독일 사회주의 이론가들과 미국 극작가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그것을 자신의 극작품에 잘 녹여냈다.

커쉬너는 번역과 개작에도 공을 들였다. 프랑스 고전주의 극작가 피에르 코르네이유의 동명의 작품을 개작한 〈환영〉(1988)에서는 삶과 연극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유대인 작가 S. 안스키 원작, 요하킴 뉴그로헬이 번역한 작품을 개작한 〈몸을 떠난 혼 또는 두 세계 사이에서〉(1997)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신비롭게 다루고 있다. 브레히트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1941)을 번역하여 무대에 올렸고, 〈사천의 착한 사람〉(1943)을 개작하고 번역했다. 그는 브레히트 작품의 개작과 번역을 통해 “작가는 사회 변화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브레히트의 후계자로 자리매김하려 했다.

커쉬너가 번역하고 개작한 작품들은 〈엔젤스 인 아메리카〉가 받았던 만큼의 찬사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최근 들어서는 그는 연극보다도 영화 쪽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에릭 로스와 함께 스티븐 스피버그의 영화 〈원헨〉(2005)의 시나리오를 썼고, 스피버그가 감독하고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링컨으로 분한 영화 〈링컨〉(2012)을 통해서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 후보에 올랐다. 에세이집 「덕목과 행복에 관한 오래된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기」(1995), 단막극 〈성경의 열쇠로 건네주는 사회주의에 대한 지성적 동성애자의 조언〉(2009)을 통해 섹스, 동성애 해방, 사회주의 관련 의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유한다. 각종 인터뷰와 강연에 응하면서 미국의 주변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성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커쉬너는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의 편집장인 일곱 살 연하의 마크 해리스와 공식적인 게이 커플이 되었고, 2008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적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는 2003년 시카고 컬럼비아대학교, 2008년 뉴욕주립대학교 퍼처스대학, 2011년 뉴욕시립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6월에는 백악관으로부터 연극과 영화에 기여한 공으로 예술 분야 국가 훈장을 받았다. “무대를 위한 것이든 은막을 위한 것이든 간에, 그의 대본은 유머를 격노, 역사를 환상, 철학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과 결합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관객을 감동시켰다”는 훈장 수여 시 백악관의 짧은 설명은 그의 작품 세계를 잘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윤철

〈미국의 천사들: 제1부—새 천년기가 다가온다〉_『동시대 미국회국 분석—실천적 관습적 읽기』 Vol. 2, 연극과인간, 2004. 127-254.

윤정용

「영화로 문학 읽기 문학으로 세상 보기」_고두미, 2018.

「〈미국의 천사들〉에 나타난 쿠시너의 정치 철학」_『동서비교문학저널』 제46호, 2018년 겨울. 263-294.

이희원

「토니 커쉬너, 〈미국의 천사들〉」_『폴리처상을 통해 본 현대 미국연극』, 현대영미드라마학회편, 건국대학교출판부, 2014. 45-70.

작품 속 키워드

참고:

두피디아 <https://www.doopedia.co.kr/>

위키리스크 <http://www.wikileaks-kr.org/>

위키피디아 <https://www.wikipedia.org/>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인물



영화 <로이 콘-악마의 변호사
Where's my roy cohn>(2019)의
포스터



줄리어스와 에델 로젠버그 부부

로이 마커스 콘 Roy M. Cohn

‘악마의 변호사’로 불리며,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1950년대부터 사망 이후까지 여러 사회적 스캔들을 일으켰던 실존 인물이다. 마피아 조직과도 밀접한 교류를 가졌으며, 도널드 트럼프의 멘토였다는 사실 또한 유명하다. 그는 유대인이자 성소수자였으며 에이즈로 사망했다.

▶ 극 중 인물 로이 콘은 실존 인물의 말년을 바탕으로 하며, 작품에서 그려지는 로이는 실제와 비슷하지만 극적 상상력으로 창조된 인물이다.

줄리어스와 에델 로젠버그 Julius and Ethel Rosenberg

로젠버그 부부는 소련에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1951년 재판을 받았다. 재판 당시 담당 검사였던 로이 콘이 에델의 남동생인 데이비드로부터 자백을 이끌어 내, 다른 증거가 없었음에도 유죄 판결을 받아 사형이 구형되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스파이 혐의로 민간인을 사형 집행한 사례였다.

에드 코치 Edward Koch

본 작품의 배경인 ‘1980년대 뉴욕’의 시장으로, 유대인이자 성소수자였으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고 한다.

에머슨의 신비주의_3막 4장

랄프 월도 에머슨 Ralph Waldo Emerson(1803-1882)은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난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이다.

편협한 종교적 독단이나 형식주의를 배척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인간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적 사상을 주장하여, 자연과 신과 인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범신론적인 초월주의 철학 입장에 섰다.

아인 랜드 Ayn Rand _4막

미국의 유대인/러시아계 미국인 소설가이자 극작가, 철학자로 본명은 ‘알리사 지노브예브나 로젠바움’이다. ‘아인 랜드’라는 필명으로 대표작으로는 소설 <움츠린 아틀라스>, <파운틴헤드> 등이 있다. 이성의 가치와 극단적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유명하며, 매우 극단적인 팬덤을 지니고 있어서 1960~1970년대 미국 사회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를 경멸했지만 세상의 평가는 리버테리안의 기수로 여겨지는 인물이다. 객관주의 철학Objectivism의 창시자이자 객관론과 자유시장경제를 철저히 옹호했던 아인 랜드는 소설가이자 경제철학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국 주류 우파세력의 사상적 근간을 제공했다.



아인 랜드

존 브라운 John Brown (1800-1859) _4막

미국 육군 대령 전역한 사회 운동가이다. 노예 제도 폐지론자로 혹은 노예 해방 운동에 힘썼으나, 결국 노예들의 반란을 선동한 죄 외 4가지 죄목으로 주정부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를 받고 사형되었다. 그는 아직까지도 ‘영웅적 순교자’와 ‘미치광이 테러리스트’라는 엇갈린 평을 받고 있다.

▶ 존 브라운의 시체¹⁾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북군 행진을 위한 행진곡이며, 한국과 일본에선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로 개사되어 더 많이 알려져 있다.

■ ‘존 브라운의 시체’는 본 작품 4막의 제목이기도 하다.

키신저와 솔츠 _4막 1장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는 대표적 정치현실주의자로 어떠한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성향으로 인하여 정통 보수주의자와 대안우파, 진보주의자 모두에게 비판받았다. 조지 솔츠George Pratt Shultz는 닉슨 대통령 시절 노동부장관과 재무장관을 지냈으며 레이건 대통령 때에 이르러 국무장관이 되었다. 당시 반소련 분위기에서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핵무기 감축 협상을 주도했다.

닉슨과 마오쩌둥 _4막 1장

1972년 2월 21일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 본래 닉슨은 반공주의자로 유명했기에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마오쩌둥을 만난 것은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 ‘닉슨, 중국에 가다Nixon goes to China’라는 말이 ‘이념적 적대세력과의 화해, 혹은 그에 버금가는 정책 전환’을 가리키는 관용어구가 되었다.

정치/사회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перестройка

‘개혁’, ‘계몽’의 의미를 가지는 러시아어로, 1985년 3월 미하일 고르바초프 Mikhail Gorbachev가 소련 공산당의 서기장으로 취임한 후 실시한 개혁정책을 일컫는다.

기본 노선은 헌법·법률·행정 개혁, 대통령 권력의 강화, 혼합경제화에 의한 경제개혁, 공산당과 노동 조합 및 소비에트의 기능 분리, 공산당으로부터 소비에트로의 권력 이양, 군비축소, 동서의 긴장 완화, 상호의존체제 확립 등이었으며, 소련의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의 흐름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볼셰비키 Большевики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이 인솔한 급진적 공산주의 분파이자 유라시아 북부 지역의 공산주의 정당.

러시아 내전 종전 후에도 소비에트 연방을 포함한 유럽 내에서 실질적·형식적으로 꾸준히 공산당 및 공산당 지지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였으며, 1952년 10월 이후부터 이 명칭은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네프(신경제정책) Новая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литика, НЭП

1921년부터 1928년의 5개년 계획 개시까지 채용한, 전시공산주의를 대신한 경제 정책이다. 블라디미르 레닌 등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농민의 수확물 자유판매, 공산주의 체제 테두리에서의 소기업 경영, 상거래 등 시장사회주의적 방법도 인정했다.

▶ **니콜라이 부하린**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Буха́рин(1888-1938) — 소련의 혁명가, 경제학자, 정치가로서 볼셰비키 당 내에서 탁월한 이론가였다. 레닌의 죽음 이후 핵심 권력으로 떠올랐으며 좌익 반대파에 맞서 네프를 옹호하였다. 스탈린은 부하린의 네프를 자본주의적인 일탈이라고 규정하며 비판했으며 결국 부하린은 스탈린과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나 반혁명 분자로 몰려 처형됐다.



니콜라이 부하린

[미국]

레이건 정부(1981-1989)

로널드 레이건 Ronald Wilson Reagan(1911-2004)은 영화배우 출신 정치가였으며, 70세의 나이로 미국의 4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레이건의 등장은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이후 사라져간 미국의 전통적 가치, 보수주의의 부활을 의미했다. 그는 공산주의 타도를 외치고 보수주의 이념을 정책에 반영하여 ‘작은 정부’를 표방했다. 그의 경제정책은 레이건과 이코노믹스가 합해져 ‘레이거노믹스’라는 용어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감세, 규제 완화, 경제 안정 등을 외치며 정부규모를 축소했다.

이란-콘트라 스캔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미해군 중령 올리버 노스의 의견에 따라 실행된 작전으로 미국 CIA가 적성국이었던 이란에게 무기를 몰래 수출한 대금으로 니카라과의 우익성향 반군 콘트라를 지원하다 발각되어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는 사건 발생 초기에 제 2의 워터게이트라고 불렸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레이건 정부의 최대 오점이자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다.

매카시즘과 조셉 웰치

조셉 레이먼드 매카시 Joseph Raymond McCarthy는 미국의 변호사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로이 콘과는 중요한 정치적 파트너이자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과장되고 왜곡된 자료와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워 전 세계적인 반공산주의 선포인 ‘매카시즘’을 일으켰다.

매카시가 육군 통신단 센터가 공산당 스파이와 연관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1954년 상원의 ‘육군-매카시 청문회’가 열렸고, 이는 텔레비전 방송으로 공개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매카시는 증인들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청문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계기로 매카시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육군의 참모 대리 변호사인 조셉 웰치 Joseph N. Welch에게 인신공격을 한 것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본 작품에서도 등장하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행동하다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At long last, have you left no sense of decency?”는 당시 매카시를 향한 조셉 웰치의 유명한 어록으로 남아있으며, 이 순간은 매카시즘 역사의 전환점으로 간주된다.

▶ 릴리언 플로렌스 헬먼Lillian Florence Hellman— 저널리스트인 릴리언 헬먼은 로이 콘과 매카시, 데이비드 샤인G. David Schine의 관계를 ‘보니와 보니와 클라이드’라고 언급하며 청문회가 열리게 된 상황을 모순적이라며 비판했다.

[기타]

크리올Crioole과 몰라토mulatto

크리올은 본래 유럽인의 자손으로 식민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보통 유럽계와 현지인의 혼혈을 부르는 말로 쓰인다. 이와 유사하게 몰라토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백인과 흑인의 혼혈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차별적 표현으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에이즈AIDS와 AZT



AZTAldidothymidine
아지도티미딘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에이즈AIDS)는 198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크게 발병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HIV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병하는 나타나는 전염병으로, 현재는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다. HIV/AIDS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인 아지도티미딘 Azidothymidine, AZT은 1987년 미국에서 사용이 승인되었으며 HIV의 최초의 치료제였다.

이중맹검법Double Blind Test

임상시험 방법 중 하나로 처방하는 의사와 투약 받는 환자 모두 약의 진위를 알 수 없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시험에 참여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의사와 환자의 주관의 개입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작품의 배경이기도 한 1980년대, AZT는 이중맹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임상시험에 참여하여도 진짜 약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절반이었다.

시온주의Zionism

유대주의, 유대주의로도 불린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 민족주의 운동으로, 19세기 말 프랑스에서 유대인 차별·인권유린 사건인 ‘드레퓔스 사건’이 발생하자 그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다. 시온Zion이란 원래 예루살렘 시가지 내에 있는 언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인의 땅’을 의미한다. 동유럽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시온주의에 동조하여 팔레스타인 이민을 결정했으며 1948년 UN의 분리독립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주권 다툼이 격렬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

유대교 / 기독교

성서 기준, 유대교는 예수를 구원자(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율법(성서)만을 인정한다. 기독교는 구약과 예수 이후의 복음서인 ‘신약’까지를 인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의미하며 천주교, 개신교, 침례교, 물몬교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유대교는 613개의 율법으로 종교, 생활적 금기를 세세하게 규정한다.

물몬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미국에서 생겨난 기독교계 종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로마 가톨릭이나 개신교와 달리 자신들만의 물몬경을 주요 경전으로 하여 '물몬교'라고 불리게 되었다.

물몬교도들은 사후에는 다른 계층들이나 왕국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인류가 어디서 귀결될지는 이 생애에서 무엇을 믿고 행하는지에 달려있으며, 믿음과 선행들의 조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생활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 예를 들면 가족관, 낙태, 동성애 등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띤다.

▶ 유타 주, 솔트레이크 시티— 솔트레이크 시티는 극 중 한나 피트가 사는 유타 주의 수도로, 물몬교의 총본산인 템플스퀘어가 위치해있어 물몬교의 종교적 중심지이자 물몬교도의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 돌안경Peepstone— 물몬경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는 천사 모로나이로부터 땅속 돌상자에 보관하던 고대의 성서, 물몬경의 금판 원본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여러 개의 금판 위에 상형 문자가 기록된 형태였으며, 금판과 함께 이를 번역하기 위한 돌 두 개도 함께 받았는데, 현대의 안경과 비슷한 모양새였다고 한다.

예언자 요나 _4막 8장

“그 사람을... 고래밥으로 만들었죠”

요나는 BC 8세기경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예언자로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며, 요나서의 중심 인물이다. 일반적인 예언자와 달리 신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으며, 일부 번역에 의하면 큰 물고기 또는 고래에게 잡아먹혀 사흘 동안 그 배 속에 있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예언자 요나를 그린 삽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1855)
귀스타브 도레

장자권

“자넨 내 축복을 받겠다고 날 속이지 않아도 괜찮아, 그 성경에 나온 녀석처럼 말이야. 그놈은 발톱을 세우고 이를 갈아서 장자권을 쟁취해갔어.”

야곱은 창세기의 주요한 인물로,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였다. 장자권을 중요시하지 않았던 형에게, 팔족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함으로써 이를 얻었다. 이후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내려줄 축복까지 쟁취한다.

야곱의 사다리

장자권과 축복을 쟁취한 야곱은 형을 피해 친척 집으로 피신하던 중 잠시 자다가 꿈에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게 된다. 그리고 신이 야곱에게 나타나 지금 누워있는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며 축복해준다.

야곱의 씨름

여러 해가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머무른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떤 이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된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어 놓아달라고 하니, 야곱이 자기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야곱은 신의 축복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64년~1966년에 제작된 <아담스 패밀리> 코미디 드라마

레퍼런스

아담스 패밀리 The Addams Family _2막 1장

“넌 무슨 아담스 패밀리처럼 차려 입었니?”

<아담스 패밀리>는 1930년대 신문 만화에서 시작되어 이후 드라마, 영화, 시트콤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죽음, 고통 등 네거티브한 감성과 고스 록을 연상시키는 어두운 패션, 코믹스러운 스토리 전개가 특징이다.



카우보이 모습의 말보로맨 입간판

말보로 맨 Marlboro Man _4막 4장

“완전 말보로 맨이야”

미국의 담배 홍보 캠페인과 그 모델을 가르킨다. 모델은 담배의 패키지를 연상시키는 빨간색 셔츠와 흰색 모자를 쓴 카우보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펜데믹의 등장으로 되묻는 혼돈된 가치관과 신의 메시지

국립극단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원-밀레니엄이
다가온다〉

이미원 연극평론가, 한예종 명예교수

※ 월간 한국연극 2022년 1월호에
게재된 리뷰이다.

커쉬너의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원-밀레니엄이 다가온다(이하 〈엔젤스〉로 명명하겠다)〉가 신유청 연출로 2021년 연극의 대미를 장식했다. 명동예술극장에서 11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한달간 계속된 공연은, 이미 개막전부터 전석이 매진되는 놀라운 관객의 호응을 보여줬다. 이는 〈엔젤스〉가 서구에서 석권했던 각가지 상들(로렌스 올리비에 연극상, 플리처상, 토니상, 드라마데스크상, 뉴욕비평가상)과 비평가들의 찬사를 상기할 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고가 없는 연극은 지루하다. 그러나 누군가 그것에 살을 입힐 때까지 모든 사고는 죽어있다. 〈엔젤스〉는 바로 그런 사고들로 넘치는 작품이다”라고 연출가 도넬란이 말했듯이, 본 작품에는 20세기말 미국이 안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민주를 가장하나 자본을 앞세운 독선적인 정치 시스템, 레이건 정부로 대표되는 보수 가치관과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소수자들의 진보적 사고, 이 틈새에서 에이즈는 징벌적 역병으로 간주되는 절망적 세기말에 인간은 신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환영에까지 이른다. 그러하기에 한 마디로 이 작품에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장벽의 이야기를 보여 주며, 세기말적 분위기 속에 인간의 구원을 찾아가는 묵시록이다.

펜데믹의 죄의식과 가치의 혼돈

작품을 간단히 말한다면 에이즈가 창궐하던 1980년대 미국에서 동성애혐오증에 시달리던 에이즈 환자와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다. 그러나 작품의 줄거리는 쉽게 정리되지 않는데, 큰 줄기의 하나는 에이즈에 걸린 프라이어와 그 동성연인 루이스의 이야기와, 다른 하나는 법무관 조와 그의 약물중독자 아내 하퍼, 그리고 그에게 워싱턴 DC 법무부 일을 제안하는 냉혈 변호사 로이의 이야기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 주변에는 항상 다른 인물이나 환경들이 언뜻언뜻 엿갈리며, 역시 중요한 메시지를 갖는다. 가령 공연은 루이스 할머니의 장례로 시작하는 데, 랍비는 그녀가 머나 먼 이민을 지나 낯선 미국

땅으로 이주해서 가족을 일군 위대한 유대인 여인이라고 치하한다. 즉 랍비는 유대인의 긴 유랑과 역사를 부각시키며, 결국 인간의 뿌리를 환기시킨다. 시작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은 도도한 역사속에 있는 인간존재를 예시하고 있는데, 아이로니컬하게도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손주 루이스는 진짜 살아있었던 할머니를 거의 기억할 수 없도록 그녀는 오래 병들고 소외되어 있었다. 이 죽음의 그림자는 루이스의 동성연인 프라이어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소식에 강화된다. 결국 루이스는 두려움에 프라이어를 떠나고, 프라이어는 루이스를 그리며 환상속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듣는다. 반면 동성애인 혹은 간호사 벨리즈는 묵묵히 프라이어를 돕는다. 작품의 다른 이야기는 물론교도인 법무관 조를 중심으로 그려지는데, 그는 막강한 권력의 중심인 악마의 변호사로 이름난 로이에게서 워싱턴 DC 법무부 일을 제안받는다. 조의 아내 하퍼는 약물 중독에 빠졌는데, 뉴욕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조는 아픈 아내를 힘들어 하면서도 그녀를 떠날 수는 없으니, 자신이 동성애를 그린다는 깊은 죄의식 때문이다. 프라이어를 떠난 죄책감에 울고 있던 루이스를 우연히 보고 위로하던 조는 그와의 동성애로 발전된다. 남편의 짐작했던 동성애 고백을 받은 하퍼는 환상 속의 여행가이드와 조를 떠난다. 로이의 제안도 결국 로이의 이익을 위함이 밝혀지며, 조는 사랑과 윤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거절한다. 그런데 로이마저도 놀랍게도 에이즈에 걸렸으나, 자신의 병을 감추고 암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아들 조부부의 위기를 느낀 조의 어머니는 뉴욕행을 감행한다.

이런 얽힌 이야기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다가오는데, 우선 종교와 죄의식의 문제이다. 프라이어는 미국 전통 기독교 세력의 대명사인 백인/영국계/개신교도인 와스프(wasp)이고, 루이스와 로이는 유대교, 조와 하퍼는 물론교이다. 이들 모든 종교는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기에 동성애자는 깊은 죄의식을 안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압력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더구나 루이스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프라이어를 버렸다는 죄책감까지 더해진다. 조는 물론교의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욕망과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로이는 스스로 냉철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걸린 에이즈를 부정한다. 프라이어는 환청을 들으며, 잊었던 자신의 와스프라는 정체성을 생각해낸다. 즉 내면의 죄의식과 무의식적인 종교적 율법은 자신에게 충실한 자유로운 삶과 충돌하기에 각자가 괴롭다. 그러나 천사가 동성애로 인한 천벌이라는 에이즈 환자인 프라이어에게 나타나서 예언자라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결국 구원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온다는 기독교의 윤리에 일치하지 않은가? 인종차별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이다. 인종차별을 포장만의 정치 담론으로 넘어가려는 미국사회를 소수자인 블랙이나 유대인은 씨니컬하게 조롱한다. 보수와 진보는 권력과 저항자로 대변되고, 사랑과 자유조차 거대한 자본주의에 의해 조정되는 정치권력으로 규정지어지는 것이다. 어쩌면 약물에 중독된 하퍼만이 이런 가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도 느껴진다. 오존층의 파괴에 침투되어 있는 하퍼의 말처럼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으니, 모든 생태계는 언제 울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이 되어서 더욱 위태 위태하다. 이러한 혼돈 속에서, 작가는 동성애와 에이즈조차 개인적인 징벌이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문제임을 주장한다. 또한 머지 않아 다가오는 밀레니엄처럼 현재의 문제들을 곧 무너져버릴 역사와 생태계의 일환으로 일반화시켰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변증법적 역사의 진화를 기대하며, 또 신의 메시지를 애타게 기대게 된다.





무대와 연기

공연은 무엇보다도 현실과 환상의 장면들을, 특히 회전무대를 적극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이어간 연출의 감각과 무대미술(조수현 디자인)이 돋보였다. 양쪽 상단에서 은은한 노란빛이 쏟아지는 창을 가진 하나의 방같은 프로씨니엄 무대에서 중앙의 회전무대를 회전시켜서 여러 공간을 흐르듯이 표현했다. 프로씨니엄 공간은 우리가 갖힌 변하지 않는 세상을, 그 너머는 신의 세계를, 그리고 회전무대는 복잡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표현되었다. 무대의 장면이 마치 꿈일 수도 있다는 듯이 보여주고 또 사라지며, 최소한의 미니멀리즘을 택한 무대였지만, 여러 장면을 보여주기에 무리가 없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각자가 쏟아내는 사고의 흐름이다. 권력의 상징인 로이의 속사포 같은 대사를 가차없이 쏟아내는 박지일 배우나 죄의식과 인종차별에 대한 루이스의 장황한 대사를 막힘없이 해내는 김세한 배우, 약물 중독인 하퍼의 경계를 공감할 수 있도록 연기한 김보나 배우, 일상과 환상을 오가며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를 재현했던 정경호 배우 등등, 모든 배우들의 열연과 양상을 이 두르려졌다. 마지막에 와이어에 매달려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은 아름답고 깨끗한 천사의 이미지가 아니라 뜻밖에도 인간처럼 ‘물에 젖고 상처받은 날개’의 모습이다. 그는 프라이어를 예언자로 부른다. “반갑다, 예언자여. 이제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기 메신저가 왔다.” 모두는 신의 목시를 찾고 있었다. 연출이 그토록 ‘성서의 모세 오경’에 집착했던 바를 깨닫게 하는 본 작품의 주제이다.



오늘의 〈엔젤스 인 코리아〉

미국 1980년대와는 다른 역병이지만, 오늘날 코로나가 전세계를 멈추고 있는 상황은 놀랍도록 과거와 오늘의 유사한 병치를 보여준다. 에이즈 대신에 코로나가, 그리고 하퍼가 염려했듯이 오존층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뭄과 홍수라는 이변을 속출하고, 탄소배출권을 전 세계적으로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변화는 인간의 죄의식을 돌우며 우리에게 목시록을 찾도록 요구한다. 특히 오늘 한국의 사회는 1980년대 미국과 같이,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고 한치의 화해가 없어보인다.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여, 여성과 퀴어가 전면에서 떠오르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형성되기는 아직 멀었다. 오늘의 천사는 죽어가는 코로나 환자에게 나타날 것인가? 과연 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엔젤스〉의 모든 인물들이 창세기의 야곱처럼 천사와 씨름을 벌이듯이, 우리는 무엇과 씨름을 벌여야 하나? 그 목시록을 찾는 일이야말로 한국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엔젤스〉가 공연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외부로부터

이 작품 속에는 오존층이 파괴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심취해 있는 하퍼라는 인물이 있다. 오존층은 외부에서 침투되는 자외선을 일정 부분 차단하여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곳에 구멍이 나버렸으니 지구의 생태계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위협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 작품의 무대는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했다.

기본적으로 무대는 온실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

만약 이곳이 보태니컬 가든이라면 여기 있는 식물들은 일정량의 햇빛과 습도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는 곳이다. 이곳이 신의 영역이라면 여기 있는 인물들 역시 가장 안전한 상태이리라.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외벽의 구멍과 깨진 천장 때문에 이곳은 일순간 아주 불안정해지고,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삶에 침투하게 될 아주 유해한 것들로부터 언젠가 죽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다. 마치 오존층이 파괴된 지구처럼 말이다.

미국에 온 낯선 이방인들. 인간이 본디 가지고 있는 완벽한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인간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에이즈라는 병. 밀레니엄을 앞두고 신이 언제 자신들을 다시 벌할지 모른다는 세기말적 불안감. 이 작품의 무대 역시, 깨지고 구멍이 나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 온실을 컨셉으로 텍스트에 흩뿌려진 의미와 병치시키고자 하였다.

허나 우리는 파멸이라고 생각했던 그 구멍 때문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직면할 수 있다. 이 작품 속에 가장 나약한(동성애자이면서 에이즈 환자이고 연인에게 버림받은) 존재이자 그것이 자기 자신임을 숨기지 않았던 프라이어만이 신의 메시지를 받은 것처럼, 어쩌면 이 작품의 주제도 깨진 그곳과 맥이 닿아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진실을 직면하는 것, 가끔은 그 깨진 곳으로부터 엔젤이 찾아오기도 하니까.

조수현 무대디자이너

■ ‘외부로부터’는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원, 2막의 제목이기도 하다.

조수현

주요작품

연극

〈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 〈언체인〉 〈생쥐와 인간〉 외

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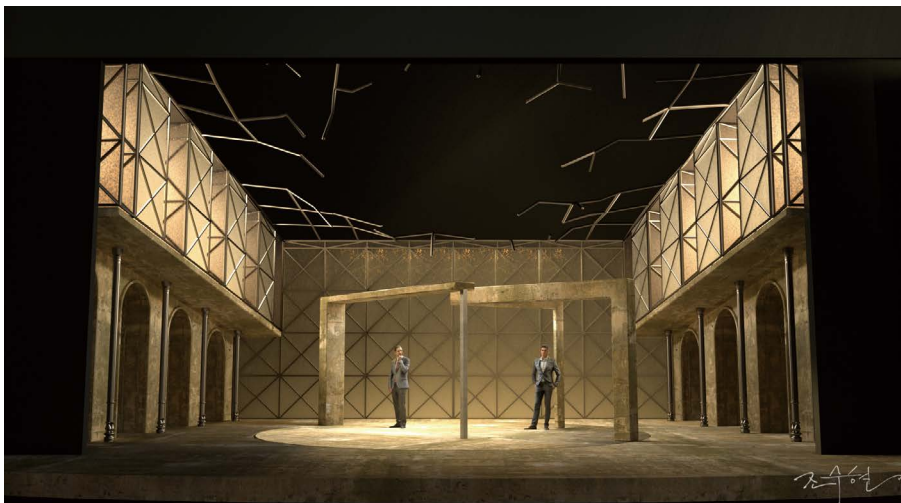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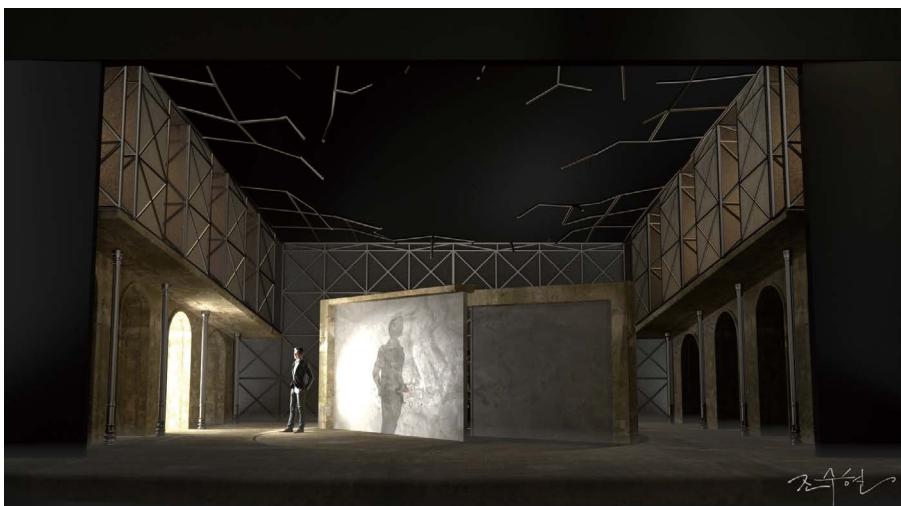
〈디어 마들렌〉 〈이토록 보통의〉 〈어쩌면 해피엔딩〉 〈앵규 베리 스트로베리〉 〈리지〉 〈새벽 세시〉 〈그리스〉 〈칠서〉 〈천사에 관하여-타락천사 편〉 외

무용

〈1828 연경당: 정재의 그릇에 철학을 담다〉 〈리진〉 〈더스트레이지엘〉 외

콘서트

〈디즈니플러스 개막 런칭쇼〉 국립국악원 70주년 기념공연 〈야진연〉 〈꿈의 오케스트라 10th 기념공연〉 외



천국과 우리의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이번 공연에서 ‘날개’는 천사의 상징을 넘어서 천국과 지구를
연결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가진다.

흰색의 아름다운 깃털이 아닌 물에 젖고 상처받은 날개의 모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원하지 않게 일상을 빼앗긴
우리의 오늘과도 닮아있다.

천사의 날갯짓으로 멈춰던 시간을 위로하고,
변화할 세상을 연결하는 구조물로서 인간에게 무한한 상상력과
창작, 희망의 의미로 위로를 전하고 싶다.

최혜진 소품디자이너

최혜진

주요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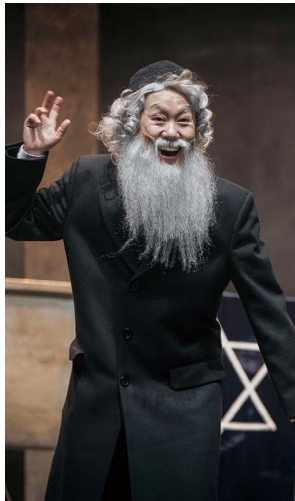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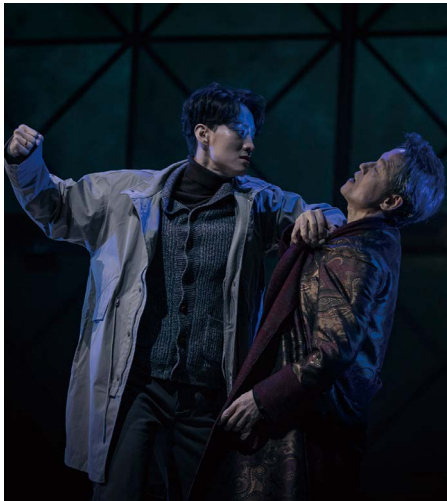
연극

〈코리올라누스〉 〈당신이 밤을 건너올 때〉 〈와이프〉 〈궁극의 맛〉 〈브라보 엄 사장〉 〈나와 아버지와 홍매〉 〈거대한 뿌리〉 〈레드〉 〈대학살의 신〉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햄릿〉 〈엄마를 부탁해〉 〈니부모 얼굴이 보고싶다〉 〈M 버터플라이〉 외

뮤지컬

〈비틀쥬스〉 〈고스트〉 〈듀엣〉 〈킹키부츠〉 〈렌트〉 〈레베카〉 〈보디가드〉 〈아이다〉 〈베니스의 상인〉 〈애니〉 〈마틸다〉 〈광화문연가〉 〈모래시계〉 〈햄릿: 엘라이브〉 〈몬테크리스토〉 〈유린타운〉 〈풍월주〉 〈모차르트〉 외







스태프

작—토니 커쉬너 Tony Kushner

프로필 _ 19페이지

연출—신유청 Shin U-chung

프로필 _ 3페이지

번역·조연출—김진숙 Kim Jin-sook

연극 [번역·각색] 〈빈센트 리버〉〈와이프〉

[협력번역] 〈그을린 사랑〉〈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

[조연출] 〈그을린 사랑〉〈빈센트 리버〉〈트로이의 여인들〉〈와이프〉〈궁극의 맛〉〈연체인〉〈조지아 맥브라이드의 전설〉〈추남, 미녀〉〈꽃잎〉외

[출연] 〈Medusa〉〈I Drink to Thee〉

음악극 [조연출] 〈드라곤킹〉

윤색—윤성호 Yoon Seong-ho

연극 [작]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누수공사〉〈미인〉〈해맞이〉외

[연출] 〈병아리를 갈아만든 피카츄 돈가스〉〈베드 타운〉〈차세대 열전 2017 노스체〉〈나선은하〉〈외계인들〉외

[작·연출] 〈죽음의 집〉〈미인-거기 있던 말들〉〈해맞이〉외

[각색·연출] 〈꿈이 아닌 연극〉외

[윤색] 〈메디아〉〈미스줄리〉〈더 파워〉외

수상 2020 제41회 서울연극제 희곡상, 연출상 〈죽음의 집〉

2018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무대—조수현 Cho Su-hyun

프로필 _ 32페이지

조명—강지혜 Kang Ji-hye

연극 〈그을린 사랑〉〈빈센트 리버〉〈추락1〉〈추락2〉〈와이프〉〈궁극의 맛〉〈녹천에는 똥이 많다〉〈당신이 알지 못하나다〉〈스테디 레인〉외

무용 〈예기치 않게 종료되었습니다〉〈변신〉외

음악·음향—지미 세르 Jimmy Sert

연극 [음악·음향] 〈그을린 사랑〉〈와이프〉〈녹천에는 똥이 많다〉〈1984〉〈손님들〉〈꿈〉〈엄마 이야기〉〈세일즈맨의 죽음〉〈하나코〉〈베르나르다알바의 집〉외
[음향] 〈새들의 무덤〉〈자기 앞의 생〉〈가족〉〈단테의 신곡〉외

의상—홍문기 Hong Mun-ki

연극 〈마우스피스〉〈파우스트 엔딩〉〈와이프〉〈킹스 스피치〉〈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녹천에는 똥이 많다〉〈얼굴도둑〉〈그게 아닌데〉〈옥상 발 고추는 왜〉〈남자충동〉〈널 위한 날 위한 너〉〈미친키스〉〈함익〉〈살짝 넘어갔다가 얻어맞았다〉〈M. butterfly〉〈다정도 병인 양하여〉외

뮤지컬 〈해적〉〈난설〉〈미아 패밀리〉〈세자전〉〈풍월주〉〈모래시계〉〈마리 퀴리〉〈틱틱봄〉〈로기수〉〈아가사〉외

오페라 〈박하사탕〉〈베르테르〉외

소품—최혜진 Choi Hye-jin

프로필 _ 34페이지

분장—정지윤 Jung Ji-youn

연극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그을린 사랑〉〈새들의 무덤〉〈와이프〉〈궁극의 맛〉〈히스토리 보이즈〉〈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프라이드〉〈더 헐멧〉〈벙커 트릴로지〉외

뮤지컬 〈마리 퀴리〉〈개와 고양이의 시간〉〈전설의 리틀 농구단〉〈최후진술〉〈명동 로맨스〉〈트레이스 유〉〈땡큐 베리 스트로베리〉〈팬레터〉〈쓰릴미〉〈이토록 보통의〉외

안무—이소영 Lee So-young

연극 〈그을린 사랑〉〈궁극의 맛〉〈녹천에는 똥이 많다〉〈망토〉〈워킹 홀리데이〉〈비포 애프터〉〈고등어〉〈엘렉트라 파티〉외

무용 〈늑대백〉〈밤 11시, 춤추는 것은 먼지〉〈강을 건너듯 문지방을 넘어〉외
[출연] 〈빨래〉외

[컨셉·구성] 〈방랑의 기술〉〈세계의 경로〉외

조연출—오익택 Oh Eui-taek

연극 [조연출] 〈그을린 사랑〉

[구성·연출] 〈인터랙티브 씨어터: 모파상에 대한 고백〉외

[드라마터그] 〈창조경제_공공극장편〉〈글로벌 프로젝트1_몇가지 만남에 대한 생각〉〈말들이 돌아오는 시硯詩詩 시간〉외

[출연] 〈터무니있는연극×부평〉〈들개의 기억〉〈사천의 선인〉〈서울연습-모델,하우스〉〈야타미 살인사건〉외

만드는 사람들

출연

박지일 로이 마커스 콘 외
전국향 한나 포터 피트 외
정경호 프라이어 월터

김보나 하퍼 아마티 피트 외
권은혜 천사 외
정환 조셉 포터 피트 외

김세환 루이스 아이언슨 외
박용우 벨리즈 외

스태프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청

번역·조연출 김진숙
윤색 윤성호

무대 조수현
조명 강지혜
음악·음향 지미 세르
의상 홍문기
소품 최혜진
분장 정지윤
안무 이소영
조연출 오의택

무대감독 나혜민
무대제작감독 경은주
조명감독·오퍼레이터 류선영
음향감독·오퍼레이터 박정현
의상감독 박지수
무대진행 마정은 유성엽 김대호 이승인 고승환
장수지
플라잉진행 이인국 김진철
의상진행 김민주 심새늘 최현태
분장진행 이은총 유시은
음향 RF 이유정
조명 팔로우 김세희 윤지수

무대어시스턴트 이정아
의상어시스턴트 고수아 이수진 윤여담
소품어시스턴트 박정경 홍연경 배희정
무대제작 온스테이지_대표 김준성
의상제작 이엘_대표 홍문기
소품·날개제작 더 소품바이진_대표 최혜진
조명장비임차 비토라라이트_대표 임홍민
조명콘솔임차 트리거 컴퍼니 대표_황종량
회전무대장비임차 시너지이펙트_대표 하동선
플라잉장치임차 Showmotion_대표 이상춘

조명프로그래머 김대희
조명팀장 이재민
조명크루 최신영 전인혜 유성욱 김병철
음향팀 박상준

한글 자막 제작·운영 이청
영문 자막 제작·운영 김현희

음원제공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2악장 Largo

홍보·마케팅 총괄 정웅성
홍보 이정현 김태은
마케팅 변정원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청년인턴 김한경 정진영

메인디자이너 페이퍼프레스_대표 박신우
응용디자이너 WT_대표 이지선
홍보사진 이승희스튜디오_대표 이승희
연습·공연사진 나승열
기록영상 영상작업공간 틀어_대표 황경환
홍보영상 602 STUDIO_대표 김영준
유연지
옥외광고 애니애드_대표 윤소향
홍보물 인쇄 인타임_대표 김종민

티켓 김효진
매표안내원 김신혜 손주형 양혜선 이송희
하우스매니저 이기쁨
하우스안내원 이지은 임예은 이신영 고정윤 고찬하
하락영 한현지 구도연 김가민 김은유

프로그램북 디자인 허미경
프로그램북 인쇄 미림아트_대표 신동복

기획·제작 총괄 김옥경
프로듀서 윤정민
제작진행 김현희

제작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재단법인 국립극단은 연극인 및 연극예술 후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예술감독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언제나 삶의 진실한 목소리를 담은 연극을 국민에게 보여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는 연극은 곧 예술의 근원이자 총체이기도 합니다. 국립극단은 시와 음악, 춤, 시간과 공간, 미디어 등 모든 것을 아울렀던 연극 본연의 정신을 이어갈 것이며, 또한 동시대인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세계와 적극 소통할 것입니다. 그 꿈과 열정의 무대가 관객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한 감동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With the board of directors who have been committed in theater or have been patrons for the performing arts,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under the guiding system of the artistic director has always endeavored to stage productions that reverberate with truth and life. We are always reminded of the fact that theater has been the origin of all arts, and it should always reflect thoughtful introspection on humankind and society.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alize the very spirit of theater which embraces the verse, music, and dance in the newly renovated form of media and understanding of space.

By staging performances that address contemporary problems, we will interact and exchange ideas with the world with our belief that our endeavor will only be completed when our performances touch and move the hearts of our audiences.

(재)국립극단 이사회 —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 김광보

사무국장 — 오현실

경영관리팀 —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 정병욱 시설·유역·공사

박예원 인사·복무·복지후생 |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공연기획팀 — 김옥경 팀장

정채영 이정민 김훈일 박소영 윤정민 김정연 프로듀서

김수현 박소영 어시스턴트 프로듀서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홍보마케팅팀 — 정용성 팀장

최윤영 김태은 이정현 홍보

이현아 박보영 오지수 이승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 김한경 정진영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윤성희 무대기계감독 | 홍영진 박지수 경은주 이승수 제작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 이영탁 청년인턴

작품개발팀 — 지민주 팀장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술

이지연 아카이브 | 김가은 청년인턴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 손준형 정한솔 연구개발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 이승하 청년인턴

2022 시즌단원 — 강현우 강해진 권은혜 김광덕 김다현

김명기 김세환 김수량 김시영 김예은 문예주 박용수 박용우

서지우 신사랑 안창현 윤성원 이동준 이은정 이혜미 정대진

정슬기

2022년



·강혜진·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스카펄>



·강현우·
<세인트 죠운>



·권은혜·
<엔젤스 인 아메리카>
<앨리스 인 베드>



·김광덕·
[창작공감: 작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앨리스 인 베드>



·김다현·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세인트 죠운>



·김명기·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스카펄>



·김세환·
<엔젤스 인 아메리카>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김수량·
[창작공감: 작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세인트 죠운>



·김시영·
[창작공감: 작가]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앨리스 인 베드>



·김예은·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스카펄>



·문예주·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스카펄>

국립 극단과

시즌 단원이



·박용수·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세인트 죠운>



·박용우·
<엔젤스 인 아메리카>
<채식주의자>



·서지우·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신사랑·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앨리스 인 베드>



·안창현·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스카펄>



·윤성원·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세인트 죠운>



·이동준·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세인트 죠운>



·이은정·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이혜미·
[창작공감: 작가] <금조 이야기>
<스카펄>



·정대진·
[창작공감: 작가] <밤의 사막 너머>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정슬기·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함께 합니다

2022

국립극단 공연안내

NTCK.OR.KR

제10회 현대일본희곡 낭독공연

2.11.-2.13.

공동기획

백성희장민호극장

엔젤스 인 아메리카 -파트 투: 페레스트로이카

2.28.-3.27.

명동예술극장

작 토니 커쉬너 연출 신유청

밤의 사막 너머

3.9.-3.20.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신혜연 연출 동이향

금조 이야기

3.30.-4.10.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김도영 연출 신재훈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4.20.-5.1.

본 공연
창작공감:
작가

백성희장민호극장
작 배해률 연출 이래은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 (미지의 세계로, 엘사 아님)

3.9.-3.20.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소극장 판
구성·연출 김미란

커뮤니티 대소동

3.30.-4.10.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소극장 판
연출 이진엽 구성 장영

소극장판-타지

4.20.-5.1.

본 공연
창작공감:
연출

소극장 판
구성·연출 강보름

제5회 중국희곡 낭독공연

4.13.-4.17.

공동기획

명동예술극장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5.11.-6.5.

명동예술극장

작·연출 전문환

청소년극 단막극 연작 <트랙터>

5.19.-6.12.

소극장 판
작 나수민 한현주 허선헌 연출 권영호

앨리스 인 베드

8.24.-9.18.

명동예술극장
작 수전 손택 연출 이연주

스트레인지 뷰티

9.1.-9.18.

공동제작

소극장 판
작 공동창작 연출 배요섭

채식주의자

9.2.-9.25.

공동제작

백성희장민호극장
원작 한강 각색·연출 설마 알루이

세인트 죠운

10.5.-10.30.

명동예술극장
작 조지 버나드 쇼 연출 김광보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

11.2.-11.27.

공동제작

백성희장민호극장
작·연출 정진세

발가락 육상천재

11.3.-11.27.

소극장 판
작 김연주 연출 서충식

스카펄

11.23.-12.25.

명동예술극장
원작 물리에르 각색·연출 임도완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별 공연 예매 개시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국립극단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킹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래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극이 보고 싶을 땐!

국립극단 회원만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앉고 싶은 좌석을 누구보다 빠르게, 최대 할인율로 예약하는 즐거움까지

유료회원

친한친구 연회비 5만원

* 가입기간 1년

- 제작공연 40% 할인(전등급, 공연별 4매한)
- 제작 공연 우선 예약
- 온라인 극장 1개 작품
1회 무료 관람권(쿠폰) 제공

연극인회원

가입대상 연극계 종사자

* 가입기간 3년

- 제작공연 50%할인(전등급, 본인 1매 한)

무료회원

- 국립극단 홈페이지 예약 시 수수료 면제
- 공연 프로그램 및 포스터 무료 다운로드

문의 및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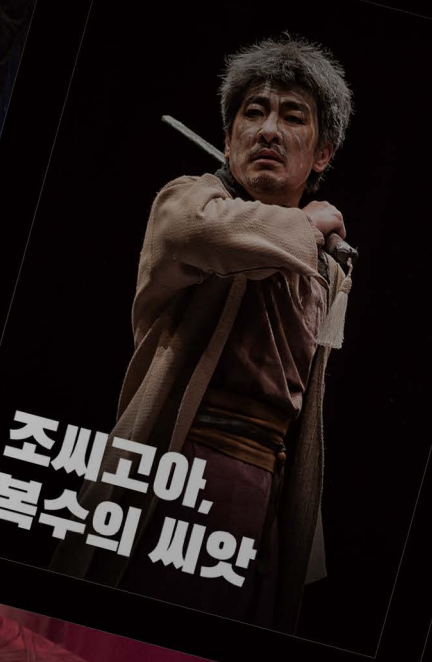
국립극단 홈페이지
www.ntck.or.kr

고객센터
1644-2003






스카팽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만선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물과 자이툰 파스타



파우스트 엔딩



X의 비극



연극을 내 일상과 가장 가깝게

ON 국립극단
온라인 극장

on.ntck.or.kr



스카팽

배리어프리-수어통역



조씨고아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빠르게 가고 있다 해도
우린 기다릴 수 없어요.”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